

세계적 양산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중그린피 할인

-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 756호 굉!

## 본즈, 美 야구역사 새로 썼다

### 최다홈런 기록 31년만에 경신

메이저리그의 '살아있는 전설' 배리 본즈(43·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마침내 미국 야구사를 새로 썼다. 본즈는 8일(이하 한국시간) 홈그라운드인 샌프란시스코 AT&T파크에서 벌어진 미국 프로야구 워싱턴 내셔널스와 경기에서 5회 말 우중간 담장을 넘기는 솔로아치를 그쳤다. 지난 5일 헝크 아론이 보유한 빅리그 최다 홈런과 타이틀 이뤘던 본즈는 사흘만에 홈런포를 재가동해 올시즌 22호이자 개인통산 756호째를 기록, 최다홈런 종전기록을 31년 만에 갈아치우며 새로운 금자탑을 수립했다. 이날도 4번타자 겸 좌익수로 선발출장한 본즈는 경기 초반부터 방망이가 매섭게 돌아갔다. 2회 첫 타석에서 우중간 2루타를 치고 나

간 본즈는 3회 두번째 타석에서는 중전안타로 출루했다. 운명의 3번째 타석, 4-4로 맞선 가운데 5회 1사 후 타석에 나선 본즈는 볼카운트 2-3에서 워싱턴 선발투수 마이크 배식의 7구째를 걸어올려 우측 펜스를 넘어가는 솔로홈런을 기록했다. AT&T파크가 온통 흥분의 도가니에 빠진 가운데 천천히 다이아몬드를 돌아 홈플레이트를 밟은 본즈는 "내가 드디어 해냈다. 샌프란시스코 팬들에게 감사드리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감격해 마지 않았다. 우측 외야스탠드에 100만달러 이상을 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본즈의 홈런 타구가 떨어지자 서로 잡으려는 관중들이 엉겨붙어 한바탕 난리를 치기도 했다. 대기록의 희생양이 된 배식은 본즈에게

세계 홈런왕

1위 배리 본즈	미국	756개
2위 헝크 아론		755개
3위 베이브 루스		714개
4위 할리 메이스		660개
5위 프랭크 로빈슨		586개

2007년 현재까지

홈런을 맞은 446번째 투수로 기록됐고 워싱턴은 팀 사상 64번째 홈런을 헌납해 LA 다저스,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함께 최다 피홈런 구단 2위가 됐다. 본즈에게 가장 많은 홈런을 맞은 구단은 샌디에이고 파드레스로 87차례나 두들겨 맞았다. 이날 본즈는 대기록을 세운 뒤 교체됐으며 샌프란시스코는 6-8로 재역전패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 대기록 달성 순간

#### 홈베이스 밟은 후 "모든 것에 감사" 울먹

거만하고 무뚝뚝하기로 악명 높은 배리 본즈였지만 이날만큼은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본즈는 감정이 격해져 울먹이는 목소리로 눈물을 글썽이며 "모든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본즈가 통산 756호 홈런을 쏘아 올려 헝크 아론을 넘어 역대 홈런 1위에 오른 8일 샌프란시스코 AT&T 파크는 환호성으로 들끓었다. 타구가 떨어진 스탠드에는 거역으로 거래될 역사적인 홈런공을 잡으려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75호 타이 홈런을 쳤던 샌디에이고에서와 달리 야유는 없었고 경기장을 가득 메운 샌프란시스코 홈팬들은 프랜차이즈 스타의 대기록을 기뻐하면서 기립 박수를 보냈다.

본즈는 '딱' 소리가 나자 홈런을 직감하고 두 손을 번쩍 치켜들었다. 다이아몬드를 한 바퀴 돌아온 본즈는 동료와 가족과 기쁨을 누렸다. 대기록의 희생양이 된 투수 마이크 배식은 잠시 침뚫한 표정이었지만 본즈가 베이스를 돌 때 모자를 벗어 대타자에 대해 경의를 표했다. 경기는 잠시 중단됐고 본즈는 전광판에 나온 헝크 아론의 축하 메시지를 숙연한 표정으로 봤다. 아론은 본즈의 홈런 레이스에 관심이 없다고 말해왔지만 영상물을 통해 "나는 홈런 기록을 33년이나 지니온 특권을 누리왔다. 나는 이제 물러나고 배리(본즈)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 역사적인 업적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 ■ 본즈 야구인생 빛과 그림자

#### 술한 기록 달성 불구 '악물 작품' 평가절하도

마침내 메이저리그 통산 홈런 선두로 올라선 배리 본즈의 야구 인생은 다른 어느 스타들보다 밝고 화려했지만 그림자 또한 깊었다. 본즈는 1986년 피츠버그 파이리츠 유니폼을 입었다. 1990년 처음으로 올스타에 뽑혔고 리그 최우수선수(MVP), 골드글러브, 실버슬러거를 휩쓸면서 리그를 대표하는 슬러거로 우뚝 섰다. 본즈는 이후 메이저리그 기록인 7차례 MVP에 뽑혔고 올스타에 14차례 선정됐으며 골드글러브는 8차례, 실버슬러거는 12차례 받았다. 본즈는 1996년 내셔널리그 최초로 시즌 40홈런-40도루 클럽에 가입했고 1998년에는 통산 400홈런-400도루를 달성한 최초의 선수가 됐다. 하지만 본즈는 2003년 발코 스펀들에 연루된 이후 스테로이드를 비롯한 금지 약물 복용 논란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그가 약물 복용을 했다는 증인이 잇따라 나오면서 공지에 처했고 본즈는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아 그가 아론의 기록을 깨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8월 미국을 대표하는 스포츠전문 채널 ESPN의 야구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배

리 본즈의 대기록 달성은 인정 하나 '위대함은 없다'며 평가절하했다. ESPN은 이날 인터넷판을 통해 '본즈의 대기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라는 주제로 소속 전문가 7명의 반응을 실었다. 소감은 놀랍게도 단 한 명의 이견 없이 본즈의 기록은 스테로이드가 만든 작품이라는 데 집중됐다. 또 미국 스포츠전문지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SI)가 인터넷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당신의 마음 속에 누가 진정한 홈런왕 타이틀을 가졌는가'라는 질문에 2천346명 중 헝크 아론이라고 답한 사람은 64%에 달했고 본즈를 지지한 사람은 36%에 그쳤다. '본즈가 스테로이드를 복용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압도적인 80%가 '그렇다'고 대답했고 '아니다'라는 응답은 4%에 그쳤다. 16%는 판단을 미뤘다.

#### ■ 한국투수들 몇개 헌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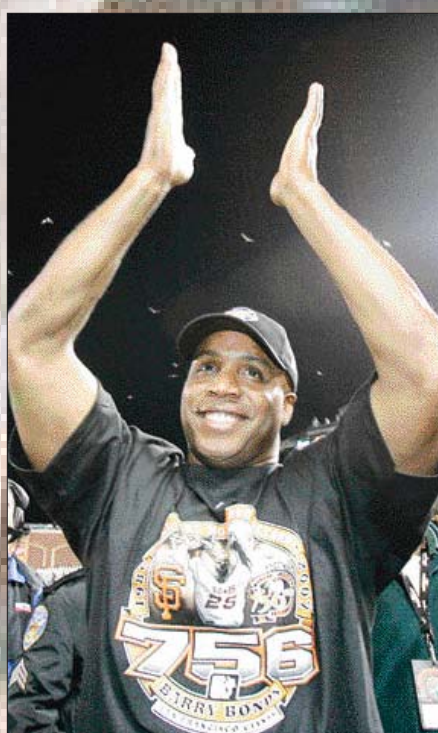
#### 찬호 8개 최다 불명예 병헌 715호 희생양

배리 본즈가 개인통산 756홈런의 대기록을 작성하기까지 한국인 투수들도 본즈의 홈런 방향이를 비껴갈 수 없었다. '말뚱' 박찬호(34·휴스턴 에스트로스)와 '한국형 핵잠수함' 김병현(28·애리조나 다이나몬드백스), 본즈와 같은 샌프란시스코 소속인 '서니' 김선우(29)도 홈런을 헌납했던 것. 서재응(29·탬파베이 데블레이스)만 본즈와 역대 상대전적에서 6타석 3볼넷 3타수 무안타로 피홈런이 없었다. 이중 본즈와 최대 악연은 1994년부터 메이저리그에서 뛰며 통산 100승을 돌파한 관록의 박찬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같은 서부지구인 LA 다저스에서 빅리그에 데뷔한 박찬호는 그동안 본즈에게 무려 8개의 홈런을 맞았다. 최다 피홈런 공동 1위의 불명예다. 김병현은 본즈와 상대전적 11타수 2안타로 강한 면모를 보였지만 콜로라도 로키스 소속이던 지난 해 5월29일 본즈에게 통산 715호 홈런에 희생양이 됐다.

#### ■ 756호 홈런볼 가격은?

#### 약물 복용설...가치 푹 100만달러 못 넘을듯

8월 31년 만에 미국프로야구 통산 최다 홈런 신기록이 세워진 순간 홈런볼이 떨어진 AT&T 파크 우중간 스탠드는 공을 낚아 채려는 관중들이 엉겨붙어 한바탕 흥역을 치렀다. 치열한 정쟁전을 뚫고 값싼 볼을 수중에 넣은 이는 뉴욕 메츠 유니폼을 입고 뉴욕에서 날아 온 매트 머피라는 청년이었다. 머피가 백만장자가 될 수 있을지는 순전히 본즈의 인기에 달렸는데 분위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금지약물 복용설 때문에 본즈가 터뜨린 기념비적인 홈런볼이 경매 시장에서 100만달러를 넘은 적은 없다. 홈런볼만 따진 경매에서는 본즈의 홈런볼이 꽤 높은 순위를 형성하고 있으나 1998년 당시 한 시즌 최다 홈런 신기록을 세운 마크 맥과이어의 70호 홈런볼 가격이 320만달러에는 훨씬 못미친다. 맥과이어의 홈런볼은 메이저리그 역대 경매 물품 중 최고가이기도 하다. 역대 세 번째로 터뜨린 본즈의 700호 홈런볼은 80만4천달러에 팔렸다. 그나마 이 가격이 최고다. 756호 홈런볼 가격에 대한 미국 언론의 시각은 편차가 심한 편이나 100만달러는 넘지 않으리라는 게 주류를 이룬다.



역사적인 756호 홈런을 때려낸 배리 본즈가 경기 후 관중들의 환호에 박수로 답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샌프란시스코의 배리 본즈가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AT&T파크에서 벌어진 미국프로야구 워싱턴 내셔널스와 경기에서 5회말 개인통산 756호 홈런을 터뜨린 뒤 두 손을 번쩍 치켜든 채 공의 궤적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